

서울, 오늘부터 6·3 계승주간

6·3의 계승, 외대훈을 깨우기 위해 기획 문익환, 임수경씨 초청 강연회 등 준비 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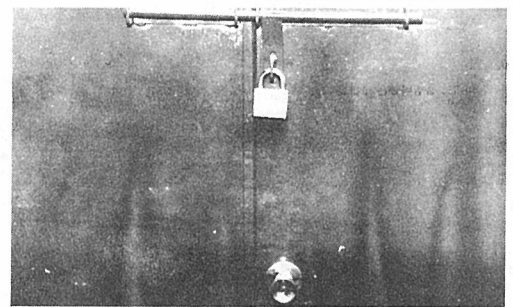


지난 91년 6월3일 본교생은 당시 국무총리사리였던 정원식씨에게 공안정국에 대한 형의사위를 밝혔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와 6·3 동지회는 오는 3일부터 3일(화)까지 6·3 계승주간으로 정하고 영화상영, 먹거리가득, 통일노래한마당 등을 진행한다.

올해 2번째를 맞는 6·3 계승주간은 91년 정총리사리 폭행사건에 대한 윤바라 계조명과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의 차원을 넘어 사회민주주의와 학원의 주인으로 방성인없이 행동했던 외대의 모습을 알리고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 첫날인 1일(화)에는 오후 6·3 계승주간 선포식을 시작으로 풍물대 연행, 판국과 자료집배부가 있을 예정이다.



초점

윤인캠퍼스 도서관 4층 민속자료실, 개관 당시부터 이른 한 침묵이 커다란 자료실로 연구를 봉헌해 학생들에게 개방하지 않고 있다.

시절기간이며 자유열람실이 적어서 모자라는 실정이지만 단적인 문은 열람을 모른다.

<이훈성 기자>

의 비공정한 보도와 언론의 역할에 대한 견해와 토론도 열릴 예정이다. 그리고 마지못한 3일(목) 오후 1시와 3시에는 북악영화, '새'와 노동영화, '이러나', '당신의 아들'을 대학원 소강당에서 상영하며 그뒤에 이 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통일노래한마당을 노천극장에서 오후 6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이외에도 대대문학의 주최의 시인과 동양대대 주최의 시인과, 학생복지위원회의 불꽃문예가 서울캠퍼스 곳곳에서 열린다.

이번 6·3행사를 기획한 최원일(법, 법학)은 "이번 행사는 6·3의 실질적인 계승과 기념의 행사자원을 넘어 모든 외대인들 참여해, 두류쪽에 꽃피는 외대문을 기념하고 청춘의 눈에서 빛나야 하는 외대가 2대의 도라의 나래를 펴

대생협-대학당국, 상호 최종입장 확인

잉여금 처분권 놓고 마찰 계속될 듯

대학당국은 대학생협동조합(대생협)에 대한 '총장명의'의 사업자등록증에 관하여'단 문서를 통해 제안된 최종합의의 사와 대생협의 '대생협발전'을 위한 합의사항'으로 제안된 최

종업장이 평평이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31일(월) 양측대표의 합의가 있었다.

대생협측은 지난 24일(월) 정기 조합원총회를 개최, 조합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사업진척을 갖고 감사위원장을 선출하였다. 조합원들은 대학당국의 일련의 대생협에 대한 조치를 명백한 학생자치권 탄압으로 간주하고, '대생협발전'을 위한 합의사항을 위한 전체 조합원 인준과 결의를 다졌다.

이를 바탕으로 협상대표로 참석한 대생협 부조합장 김현국(통학·중국어)은 "학교측의 10개항에 걸친 요구중 대생협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수용했다"며 "사업잉여금 처분권장점의 복지로 이월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앞서 대학당국 또한 다른 모든 항목은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사업잉여금 처분에 대한 결정권과 그에 따른 시행규정을 복지위에서 제정한다는 점은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생협지침을 둘러싸고 있어는 학원의 사내들은 대학 당국의 수익극대화 전략의 복지와 이월주장이 철회되지 않겠는다는 입장이다. 오늘 또 이 문제에 대한 대생협과 대학당국의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학사일정 안내

- ▲6월 2일(수)~6월 3일(목) 제2학기 수강신청
- 6월 11일(금)~6월 18일(금) 제1학기 기말시험
- 6월 14일(월)~6월 17일(목) 추가시험응시료 접수
- 6월 21일(월) 제1학기 추가시험
- ▲8월 19일(목)~8월 20일(금) 제1학기 성적확인
- ▲8월 16일(월)~8월 21일(토) 제2학기 등록기간
- 8월 23일(월) 제2학기 개강

제2차 중기발전계획 학교측안 작성완료

재원없는 계획은 속빈강정

지난해 서울캠퍼스 교정에서 흔히 들을 수 있었던 '나의 사랑 외대'가 올해 들어 외대라는 단어가 사라진 듯 하다.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던 자곡을 이젠, 외대말전에 관한 이야기들도 쉽게 들 수 있다. 외대가 발전해오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일까? 서울캠퍼스 정문의 수변과 장미꽃은 교정을 한결 빛내주고 있지만 이것으로 외대발전은 논하기는 어렵다. 아직 80년대에 해당하는 교과과정이 90년대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구태의연한 학생행정의 일부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현 재단이사회의 퇴진'이라는

화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윤인캠퍼스는 지역학과 이공계 중심의 특화발전을 골간으로 외국학 종합연구센터 건립, 98년까지 기숙사 신축 계획, 98년까지 기숙사 신축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외대대학과 부속병원에 관한 조항은 있으나 연구 검토한다는 한시적 조건이 전제되어 있다. 윤인에 만 있는 학과와 대학원 교육도 윤인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구한다는 것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대학당국의 발전안은 중장기발전계획 작성행정의(이하 작성위) 소속 8명의 전문위원 교수들이 작성한 것으로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거치지 않

학에 대해 국고보조 확대를 약속했고 본교에 대한 지원금도 확대될 것은 확실하나 이것도 본교만을 다른 대학도 보조를 받으면 외대를 발전한다는 보충수요가 되는 것임이 때론다.

윤인캠퍼스 발전안의 경우 그동안 윤인에는 교수장동과 학생들을 위한 대학이 부족하다. 서울캠퍼스에 연구동이 신축되어 연구실이 개선된 단편적 개선만 있어도 연구수요를 고려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학 강화를 위해 충실히 할 교수와도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다. 교원들의 위

학생 무관심속 용인발전 방안 부족

학생측안 조속한 시일내 마련해야

<대학부>

이러한 전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 전무이사 출신인 교육부 부장직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대학당국은 2차 중기발전계획안을 논의, 지난 5월 18일(화) 제1차 작성위원회에서 시간을 확정하였다. 대학당국의 이번 계획안은 양방향의 균형발전계획을 기조로 작성된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제1회의 의제적인 건축계획을 보면 서울캠퍼스에는 다목적 연구동 2동 신축을 통해 효율적인 공간배치를 꾀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도서관 5층에 열람실과 강의실확충(현재 교수연구실) △교사원의 학급당 인원수를 12명 이하로 줄이는 것은 학생들과 학부모임을 수월하게 할 것이다. 결국 부속 재원은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겠다는 결론이다. 새 정부가 사립대

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 계획안에는 발전계획안을 뒷받침할 재원확보 방안과 용인캠퍼스 발전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건물 신축, 학 건물도 보수, 교수 수원에 필요한 재원비원에 대해 기획조정처(처장 김용현)에게 학과별과 교수별 재단인원금 확대를, 통독금 인상, 국고보조금 확대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 재단인원금 확충은 그동안 수원이 부족해 왔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최근 기부금조달과 전입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으나 이의 개선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둘째로 통독금을 현재 수준에서 더 올린다는 것은 학생들과 학부모임을 수월하게 할 것이다. 결국 부속 재원은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겠다는 결론이다. 새 정부가 사립대

한 방안도 부족하다. 학생들의 요구사항인 분당점을 학교까지 연장시켰다. 통학비를 줄였다는 세부안이 없는 상태이다.

91년부터 시행되는 2차 중기발전안은 연말까지 확정기회를 앞두고 이 계획안을 심의할 심의위원회의 조속한 논의가 요구된다. 심의위원 18명의 학생대표가 4인원이라는 점, 학생들이 정월부족으로 한성에 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다 많은 연구적인 검토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외대 발전이 서울캠퍼스만의 발전이 아닌 캠퍼스 발전을 의미하는 단어로, 학생발전이 아닌 외대발전을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성진 기자>

동구어대, 학교측에 질의서 발송

단대분리 명확한 입장표명 요구

윤인캠퍼스 학생들의 재단분리 요구에 이념적 태도를 보여준 대학당국이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 자세를 표명하자 동구어대 학생회는 이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지난 5월 27일(목) 대학당국에 전달했다.

기획조정처장(경제학과 김용현)은 "이런 질문이 이 정도는 학원의 발전에 대한 대학당국의 명확한 입장을 묻고 있다."

동구어대 학생회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특위구성 제정 과정 △특위의 지위 △특위의 구성과 자격요건 △동구어대 단대분리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특위내에 학생들의 참여 방안 △특위내부와 논의의 공

개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런 질의서에 대해 동구어대 총학생회장 김기우(시학·체육)는 "87년 이후 7년동안이나 계속되어온 학부들의 단대분리요구는 올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질의서에 대한 학교측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당국의 답변내용에 따른 학생들의 이후 대응이 주목된다.

한총련 학사추출

교육개혁 주도 취지로

한총련 신학 '한총주주'를 추진위원회(이하 학사추)가 지난

5월 28일(금) 고려대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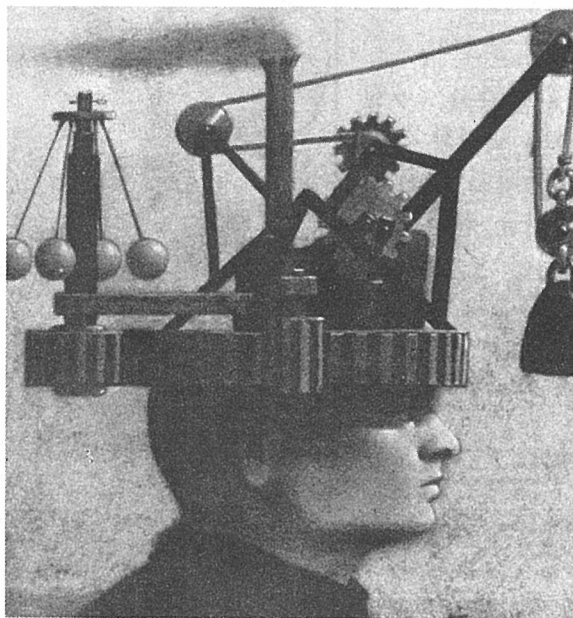
학사추는 한총련 결성과 함께 국사회의 이념에 반목하였는데 교육비와 학과와 교육개혁을 수행할 기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출범식에서 동의전문대 총학생회장 김성원(문)은 "학원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4천만 국민과 1백만 학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제1대 학사추 위원장을 맡은 장준중 전대 총학생회장은 "우리의 운동은 이의 일부만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며 학사추의 취지에 학생들이 앞장설 것을 주장했다.

부정적의론에서는 "학교 사명의 가치를 통해 생활문화운동, 학과를 모토로 하는 운동, 학과와 학과를 묶는 맺지않고 운동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기업-삼성

모든 건설의 원점은, 인간—



제2회 '건설논문상' 현상 공모

삼성종합건설은 건설분야 기술력향상과 저변확대를 통해 국내건설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건설논문상을 현상공모한다.

- | 을 | 모 | 요 | 강 |
|-----------------|---|-----------|--|
| 1. 참가대상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전공불문) | 7. 작품심사 | ●1차: 작품심사위원회 심사
●2차: 삼성종합건설이 주최하는 각 분야 권위자 교수님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 2. 응모기간 | *1993.8.20 - 8.31 | 8. 입상자 발표 | ●1993. 10. 9 일(수)에 개별통보 |
| 3. 응모주제(5개종 택일) | ●국산차량으로 건설현장의 비파괴적인 역할
●부동산을 위한 건설재해 방지대책
●건설기술의 문제점과 한·일·한 협력방안
●한반도의 국경선에 대한 영향 및 정부의 비파괴적인 건설방안
●건설시장 개황에 따른 국내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방안 | 9. 시 상 | ●1993. 10. 18 (삼삼종합건설 창립 기념식) |
| 4. 응모요령 | ●A4용지 30~40매 내외 분량으로 워드프로시용
작성 (제출: 한글용자나 한글로 표기된 리포트용지는 사용불가) | 10. 제출처 | ●서울 중구 서소문로 58-9 삼성종합건설 건설기획팀 (중앙우체국 사서함 8526, 우편번호 150-95) |
| 5. 심사내역 | ●최우수상(1명): 상금 및 상장 300만원
●우수상(3명): 상금 및 상장 200만원
●장려상(3명): 상금 및 상장 100만원 | 11. 기타 | ●공모작품은 다른 경쟁업체에 논평을 발표하지 않은 것이어야 함
●제출한 기사의 논문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원문을 밝혀야 함
●발표논문이 작성된 삼성종합건설에 귀속되며 용도변환을 변경하지 않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삼성종합건설 건설기획팀 기밀자료로 문의하십시오(TEL: 727-0301~2) |
| 6. 수상자 특징 | ●당시 입상자로서 사후통보 및 평가시행 면제
●우수상 이상 수상자는 삼성종합건설 장학금 지급 (3명 4명) | | |

SAMSUNG

삼성종합건설

외대학보 600호 발행 기념공모 수상작

광 고 부 문



당선소감

허민영의 4인
AD. Valley

—선택이 아닌 공감(共感)으로—
우리의 가능성은 인정받아 부끄러움 기쁘다.
정말 힘들게 만들었다. 우선 준비기간이 매우 길었다. 교육계
정확도, 제단축의 학교발전의 대한 성실한 태도 등 이러한 것
또한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머리속엔 온통 '외대발전'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하루들이 흘러있는 어느 곳에선 좋아 다녔다. 노원구, 강의
실, 명수당, 1년 반이 지나도록 딱 2번(한번은 담배 뿐으며,
한번은 큰 일(?) 보러) 가본 도서관에도...
'도서관 사서화'는 시험기간이 되면 대부분의 '외대인'이 느끼는
'이거주의'의 실재이다. 비단 '도서관 사서화'뿐만이 아니다.

외대발전은 '우리'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터 구성구축에는 이러한 '이기주의'의 상처가 많다.
'광고'는 '선택적' 메시지의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러나 외대발
전은 '나'가 아닌 '우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共感)'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같이 작업에 참여했던 인주, 민영, 정태, 천규형
그리고 AD. Valley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싶다.

심사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일반적 사항들이 고려되었다.
즉 수용자의 주의유도를 끄는 힘, 선택적 대사의 선행성, 메시지의
소구력, 목표충족률의 고강성, 선택적 대사의 구체성, 메시지
구성에 나타난 커뮤니케이션의 정중본성 능력 등이 그것이다.
총 8편의 출품작을 만났던 검토한 끝에 이상의 기준에서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작품 하나를 선정할 수 있었다. 우선 이 작품은
<도서관의 자리>라는 상황설정에서 목표충족의 <필요>를

자연스런 메시지 돋보여

동기화하는데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메시지 구성이
수용자의 이해력과 사전성향(predisposition)에 전혀 부담을 주
지 않고 자연스럽게 선택적 대사에 연결되어 있다. 언어적 메시지의
소구력이 보다 '스트라이크'한 비언어적 메시지(그림)의 선정에
의해 한층 강화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것
이 절절이하는 뜻은 아니다. 다른 7편의 작품들의 경우 이상의

심사평



조종혁교수
(신방과)

기존에서 볼때 부분적으로는 당선작품 보다 더 우수한 면들이
발견되었지만 총체적 평가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나은 작품이 선
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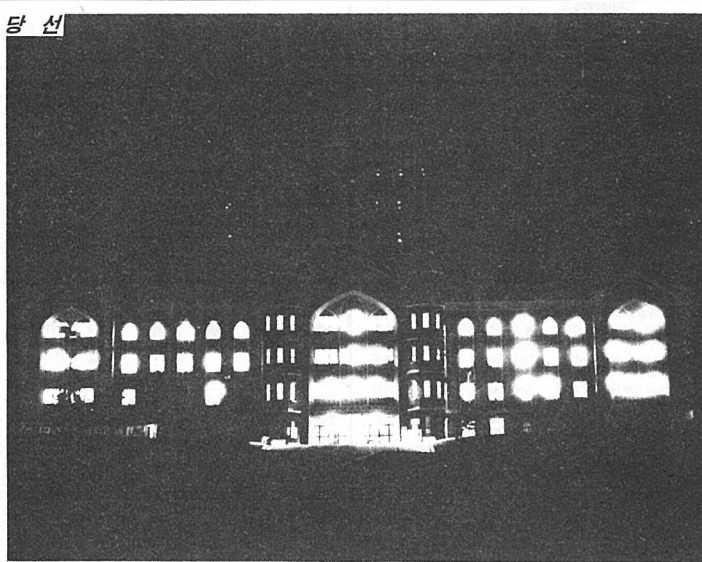
사 진 부 문



당선소감

임유승
(인문·사회4)

우리 학교의 두번째 높은 평발작을 위해서 가장 앞장 서야한
주체는 바로 우리 학우들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늘의 외대가 있기까지의 선배님들의 각고의 노력
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제 우리들이 그 뜻을 계승 해야하
기 때문입니다.
학우들 자신의 끊임없는 자기 연마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단합된 모습으로 외대는 무럭무럭 커갈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일상을 하는 것으로 국한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나 제일 나중에 중요시 되어서는 안될



당 선

심사평



이원하
(전국대학신문
기자연합산하
서울지부 사진분과)

이런 경우 '외대사랑'이라는 커다란 주제에 외대발전의
모습이 내용상으로도 잘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사진의 형식이다. 이것은 바로 그 작가의 사진기술이 맘에
주는 것이다. 이번에 출품된 작품들의 경우는 '외대 사랑'을 주
제로한 작품들인데, 몇몇 작품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 주제에
잘 표현했다고 본다. 그중에서 이 작품을 뽑은 이유는 다른 작품
들보다는 형식을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기 때문이다. 장발적인
시도, 다각적인 구도의 고민 그리고 사진에 대한 학식이 충분히
지 않은데 내용을 포괄하는 형식을 윤비로 내오기가 힘들다.
다른 작품들이 그저 평범하게 외대사랑을 예기한 반면 이 작품
은 상대적으로 특이하게 '외대사랑'을 그렸다. 누구나 외대 학생

특이하게 그린 '외대사랑'

은 한발짝 보았을 만한 밤의 학생회관, 한밤중에 불이 환히
차려학생회관을 본 일반학우들은 무엇을 생각할까. 바로 외대
발전의 밑거름을 생각할 것이다.

내용적인 면에서나 형식적인 면에서나 모두 관습은 작품이었
다. 그러나 이 작품에도 몇가지 아쉬운 점이 눈에 띈다.
가운데 학생회관으로 들어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마치 학
생회관과 보이는 이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강이 흐르고 있는 것
같다. 한밤중에 불이 환히 켜진 학생회관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학생회관과 보이는 이가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단지 거대하게 홀로 서있는 학생회
관일 뿐이다. 이때 B또는 T에서 약하게 스트로보로 한밤
터트려주었다면 길이 희미하게나마 보이면서 학생회관과 학생들
사이에서 거리를 다스려나 해소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이 남는다.

21세기의 시대적 과제 고민해야

다고 생각 합니다. 타인이나 타학교에 보이기 위한 허식은
이제 더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구태에서 벗어나 21세기의 시대적
과제에 부응 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지구와 인류라는 거대한
문제로 고민해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당면문제를 소홀
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발전적이고 폭넓은 사료를 통해
당면문제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맞
서 반드시 해결 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회관에 환하게 켜져있는 동아리 방들의 불빛에서 밝은
외대의 미래와 살아있는 외대인들의 힘을 느낄 수 있었으며 나
또한 외대인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사평

양윤경
(외대노래창작단)

외대인의 혼, 외대인의 긍지를 다시 찾고자 하는 현 시점에서
'단결가'의 가사는 지향한 외대의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이 곡은 민요풍의 노래이다. 최근 대학가 곳곳에서 우리
의 가락을 고민하고 그것으로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노래들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지만, 민요에 관한 철저한
연구없이 부분별하게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민요풍도 아니고 그
어떤 가락도 아닌 불분명한 노래들이 생겨났다.
'단결가'도 마찬가지로 처음엔 민요풍으로 시작이 되었으나
중간 중간(지향선, 더욱 찬란한, 열여덟 자 그 눈금, 지향
선 외대 만들자) 다른 리듬이 들어감으로서 곡의 흐름이 일정치
않다. 민요풍의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요에 대해
서 공부를 하고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시도를 해야 하는데, 작가
의 그러한 모습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지향선 외대의 모습 그려내

두번째,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명확하지 않다. 언뜻 보아서는
'단결가'라는 의미(곡의 제목에서도 보여준다)가 핵심인 것 같은
데, 가사를 좀더 깊게 보았을 때에는 단결의 의미보다는 '지향선
외대'라는 의미가 더 대두되는 것 같다. '지향선 우리의 역사,
조국을 빛낸 역사의 가진 외대인들이 다시금 동해보자는 뜻을
만약의 한 것 같은데, 가사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동지'라는
의미가 힘있게 형성되지 못하고 두가지 의미와 평행히 버려지면서
매이 끝나는 느낌을 준다. 노래의 핵심은 제목에 담겨서 미약한
데 전과제로는 작과 애초에 불합치함이 생겼다.
세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무난하게 진행되면서 '절정'부분이
빠졌다. 이것은 동서서 어떻게 갈라지는 의미가 부족한 데에서
생긴 결과인 듯하다. 외대발전의 내용이 보다 풍부하게 담기지
못하고 그 결과 흐름, 내용면에서 전 외대인들이 공감대를 형성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된다.
노래에는 생명이 담겨있다고도 한다. 외대인의 혼과 긍지,
그리고 외대인의 삶이 담긴 노래가 앞으로는 계속 창작되기를
바란다.

노 래 부 문

단 결 가

가 작



입선소감



박재길
(상경·경영4)

93년 1학기의 싸움도 이제 저물어가는 5월입니다. 2만년부터
슬금씩엔 전진해온 우리 7천 이름된 정준들의 가슴속에 지미다
하나씩 기쁨과 아쉬움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여름 기쁨보다는 아쉬운 기억들이 더 많은 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학생회실을 밤새 지키기 다음날의 싸움을 준비하던 무수한
날들...
때론 그렇게 준비한 행사가 우리 학우들이 오지 않을 장소에
달려보기도 하고 함께 우리 학우들이 모여 노닐을 매우 즐겁고 자
주 이길, 합의를 위해 밤새 열띤 토론을 치루는 교수님들...
무엇이 잘못된 것인?

단결의 마음을 노래에 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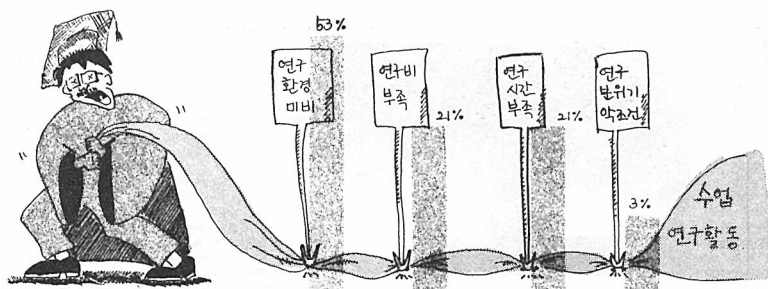
아무리 고민해도 다가오는건 죄악은 제단이라는 정박.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은 거대한 제단을 한층으로 하고 그리고
외대를 살리는데 이해를 같이하는 밤 외대인을 한 층으로 하는
매우 험난하고 간고한 싸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 단결해야 했습니다.
더 큰 마음으로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변변치 못한 곡에 우리 학보에서 너무 큰 영광을 주신
것 같아 한편으로 죄송스런기까지 합니다.
이번 사업이 '외대학보 600주년 기념 사업'이었던 만큼 다차
면 외대학보의 정통직원의 역사를 지휘합니다.

인터뷰

4070

그림 돌보기

본교 교수님들의 연구환경과 학내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한 학기 학사일정이 대부분 마무리 돼가고 있다. 그러나 학내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중 특히 서울캠퍼스의 외대발전 운동과 용인캠퍼스의 대생협, 동구캠퍼스 문제, 그 해결이 마땅치 않은 상태다. 이러한 문제의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은 학원의 3주체인 학생, 교수, 교직원인 하나가 되어 서로의 인식정도를 같이할 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 기하여 외대발전위원회에서는 교수님들께 하에서 언급했던 용인캠퍼스 학사일정과 더불어 교수님들의 연구환경에 대한 인식도를 설문조사 했다.

교수님들 사정 때문에 많은 양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지만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했기 때문에 인식 정도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먼저 교수님들의 연구환경에 대해 묻는 문항에서는 많은 교수님들이 수업 및 연구활동을 하는데 있어 연구시간과 연구비가 충분치 않다고 답했다(53%). 교수님들 역시 학생들과 비슷하게 교육환경에 대해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교의 교수들의 복지수준에 비해 본교의 복지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42%로 나타났다(39%). 복지수준의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28%)라고 답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한편 외대의 위상을 높여준 3, 4)번의 외대의 위상에 대해서는 교수님들 역시 80년대 이후 외대의 위상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며 전체의 42%가 답했다(47%). 그리고 이런 새로운 도약을 위해 사립학교에 대한 외대의 개선은 학원발전을 위한 외대의 과제인 가장 중요하다고(42%), 학원발전이 학사일정이 너무 많아서 어렵다고 답했다(35%)라는 의견도 있었다.

다음은 5)번 문항부터는 현재 양캠퍼스에서 대학교는 많은 학사일정에 대한 교수님들의 생각을 물어보았다.

일반적인 학사일정, 수업시간, 학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활동에 대한 교수님들의 생각을 물어보았다.

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71%)라고 답해 해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의견에 동의하며 재단의 투자비율을 지적한 교수도 있었다(21%), 그리고 이런 과정속에서 학과장 명의의 나쁜 학생들에 대한 경고문과 대생협은 학생들의 행동이 지나칠 경우 징계를 가능하다고(42%)라며 위와 같은 점에서는 상당한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반해 스승의 도리로서 정경은 설득력이 부족하다(25%)라는 의견도 있었다.

다음으로 학생들에 대해서도 있는 외대발전위원회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으나 재단과 학교측이 학교발전에 보다 더 큰 의지를 보여야한다(75%)라고 답해 현재 재단의 학교발전에 노력에 교수님들도 유감을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주장이 허황된 것이라는 대답도 있었다(14%). 그리고 현재 교수님들이 연구활동과 교수님들의 연구환경에 대한 인식도를 설문조사 했다.

다음으로 학생들에 대해서도 있는 외대발전위원회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으나 재단과 학교측이 학교발전에 보다 더 큰 의지를 보여야한다(75%)라고 답해 현재 재단의 학교발전에 노력에 교수님들도 유감을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주장이 허황된 것이라는 대답도 있었다(14%). 그리고 현재 교수님들이 연구활동과 교수님들의 연구환경에 대한 인식도를 설문조사 했다.

전체적으로 설문에 답한 내용을 보면 교수님들 역시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생활환경에 애로사항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개선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외대발전에 관련된 해설도 비록 소수의 교수들은 외대 발전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와 이에 대해 묻는 설문지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적지않은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태도에 감명을 표시하고 있다.

장부로부터 언급했듯이 외대발전은 학원의 3주체가 함께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외대는 본명이나 학과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나의 생각

을 객관적으로 냉철히 판단하여 올바른 외대발전의 지름길에 걸어야 한다. <이훈경 기자>

설문조사 결과

질문 1. 교수님들께서 평소 수업 및 연구활동을 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연구시간 부족: 21%, 연구비 부족: 21%, 연구비 불균형: 3%, 연구활동: 3%

연구비 부족: 21%, 연구비 불균형: 3%, 연구활동: 3%

연구비 불균형: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연구활동: 3%

대학의 진정한 위상은?

평수당

'HUFSA가 진정한 대학이려면'

대학의 기원과 발전역사, 그리고 21세기 우리대학의 미래상을 꿈꾸어 보았다.

대학은 원래 BC 4세기 플라톤이 세운 Akademia로 비롯되고 그가 죽은 후 약 100년간 고아카 데마이라 불리우는 시기에 번창했다. BC 3-2세기에는 마카 데마이라, 신아카데미라고 불리우는 플라톤 전통의 대학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592년 로마황제 Justinian은 이교적 사상의 온실이라하여 아카데미를 폐쇄했다. 그래서 약 900년에 걸쳐 유지됐던 고대학풍은 그 명맥이 끊어지고 소위 암흑시대라 불리우는 중세기 시작했다.

그러나 9세기 비잔티움에서 중세 대학이 빛을 보고 11세기 이탈리아, 13세기 프랑스에서 이어 1349년 중부유럽에 중대보급에서는 처음으로 프라하에 카렐대학이 건립되었다.

19세기말 에델대학에서 19세에 한 학위를 받은 하비 출생은 시카고에 전후후무한 대학원 중심 대학을 만들었다. 사카고에는 제3대 히치스출생은 코데에서 현대적 100년의 기본 문법, 사상, 교양도서를 선정하여 대학 4년 동안 여학생들을 통해 독파하는 교양 필수 핵심강좌를 제도를 마련하였다. 현재 미국의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은 이 교양강좌 제도를 채택하고 운용하고 있다.

유럽, 미국의 대학모형을 본따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도 진정한 대학인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서

양의 고전과 동양의 고전 100권쯤은 학생들에게 읽히고 나오는 제도 가 있어야 하겠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우리 대학은 비전이 있는가?

지난주 프라하의 카렐대학 판 로우시(Palouš) 총장이 본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으셨던 한 기념연설은 꼭 인상적이었다. 그는 21세기는 전진국 연구의 정반면 대학의 교육을 받고 보나다는 삶

교양과목으로서 독파하여, 연구하고 토론하는 대학원 中心大學으로 변화하는 기쁨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학교의 제도는 학생들에게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면 의사결정이나 과정상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그 방법의 하나로 총학장의 직선제 선출)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 교직원들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의 제도가 바뀌려면 의식혁명이나 과감한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김경진 <체코어과 교수>

를 추구하지만 대학이 직업훈련 차원에서 머물러 안일하고 했다. 우리대학 정신의 타전으로서 대학은 심오한 사상과 지적탐색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인 큰 틀에서 책임의식을 가져야한다. 참여를 통한 학습, 토론, 논쟁이 대학에 진행되어야 복잡한 다음 세대에 대비할 수 있다고 설파했다. 그는 장로나 교사의 위주의 교육은 중공화국 학생방식이 대학에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대학에 대학교와 과감한 의식혁명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학문을 추구하여 최첨단기술의 교육으로 두뇌강화시대의 전통을 되살려 현대대학의 중·서고전을

다. 학생들은 교직원들 통해 전사회의 인류유산을 지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교수의 안락은 영원히 안락하는 해인가? 안락을 통해 선진국 대학처럼 연구하고 지식을 내는 중보도 필요하다. 또한 전진적인 지기기술에서 전문화된 직업의식을 가져야 하며 학내 연수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관의 확립이 필요하다. 노년자 지기이론은 적이나 하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전문화시대의 혁명이다. 특히 대학 도서관의 모든 직원은 가능한 한 교육적으로 전문화 시켜서 수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도서관이 동아리 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다.

한국대학에 대학교와 과감한 의식혁명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학문을 추구하여 최첨단기술의 교육으로 두뇌강화시대의 전통을 되살려 현대대학의 중·서고전을

다. 학생들은 교직원들 통해 전사회의 인류유산을 지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교수의 안락은 영원히 안락하는 해인가? 안락을 통해 선진국 대학처럼 연구하고 지식을 내는 중보도 필요하다. 또한 전진적인 지기기술에서 전문화된 직업의식을 가져야 하며 학내 연수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관의 확립이 필요하다. 노년자 지기이론은 적이나 하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전문화시대의 혁명이다. 특히 대학 도서관의 모든 직원은 가능한 한 교육적으로 전문화 시켜서 수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도서관이 동아리 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다.

한국대학에 대학교와 과감한 의식혁명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학문을 추구하여 최첨단기술의 교육으로 두뇌강화시대의 전통을 되살려 현대대학의 중·서고전을

다. 학생들은 교직원들 통해 전사회의 인류유산을 지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교수의 안락은 영원히 안락하는 해인가? 안락을 통해 선진국 대학처럼 연구하고 지식을 내는 중보도 필요하다. 또한 전진적인 지기기술에서 전문화된 직업의식을 가져야 하며 학내 연수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관의 확립이 필요하다. 노년자 지기이론은 적이나 하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전문화시대의 혁명이다. 특히 대학 도서관의 모든 직원은 가능한 한 교육적으로 전문화 시켜서 수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도서관이 동아리 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다.

한국대학에 대학교와 과감한 의식혁명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학문을 추구하여 최첨단기술의 교육으로 두뇌강화시대의 전통을 되살려 현대대학의 중·서고전을

다. 학생들은 교직원들 통해 전사회의 인류유산을 지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교수의 안락은 영원히 안락하는 해인가? 안락을 통해 선진국 대학처럼 연구하고 지식을 내는 중보도 필요하다. 또한 전진적인 지기기술에서 전문화된 직업의식을 가져야 하며 학내 연수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관의 확립이 필요하다. 노년자 지기이론은 적이나 하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전문화시대의 혁명이다. 특히 대학 도서관의 모든 직원은 가능한 한 교육적으로 전문화 시켜서 수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도서관이 동아리 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다.

한국대학에 대학교와 과감한 의식혁명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학문을 추구하여 최첨단기술의 교육으로 두뇌강화시대의 전통을 되살려 현대대학의 중·서고전을

다. 학생들은 교직원들 통해 전사회의 인류유산을 지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교수의 안락은 영원히 안락하는 해인가? 안락을 통해 선진국 대학처럼 연구하고 지식을 내는 중보도 필요하다. 또한 전진적인 지기기술에서 전문화된 직업의식을 가져야 하며 학내 연수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관의 확립이 필요하다. 노년자 지기이론은 적이나 하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전문화시대의 혁명이다. 특히 대학 도서관의 모든 직원은 가능한 한 교육적으로 전문화 시켜서 수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도서관이 동아리 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다.

한국대학에 대학교와 과감한 의식혁명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학문을 추구하여 최첨단기술의 교육으로 두뇌강화시대의 전통을 되살려 현대대학의 중·서고전을

다. 학생들은 교직원들 통해 전사회의 인류유산을 지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교수의 안락은 영원히 안락하는 해인가? 안락을 통해 선진국 대학처럼 연구하고 지식을 내는 중보도 필요하다. 또한 전진적인 지기기술에서 전문화된 직업의식을 가져야 하며 학내 연수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관의 확립이 필요하다. 노년자 지기이론은 적이나 하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전문화시대의 혁명이다. 특히 대학 도서관의 모든 직원은 가능한 한 교육적으로 전문화 시켜서 수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도서관이 동아리 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다.

한국대학에 대학교와 과감한 의식혁명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학문을 추구하여 최첨단기술의 교육으로 두뇌강화시대의 전통을 되살려 현대대학의 중·서고전을

다. 학생들은 교직원들 통해 전사회의 인류유산을 지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교수의 안락은 영원히 안락하는 해인가? 안락을 통해 선진국 대학처럼 연구하고 지식을 내는 중보도 필요하다. 또한 전진적인 지기기술에서 전문화된 직업의식을 가져야 하며 학내 연수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관의 확립이 필요하다. 노년자 지기이론은 적이나 하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전문화시대의 혁명이다. 특히 대학 도서관의 모든 직원은 가능한 한 교육적으로 전문화 시켜서 수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도서관이 동아리 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다.

한국대학에 대학교와 과감한 의식혁명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학문을 추구하여 최첨단기술의 교육으로 두뇌강화시대의 전통을 되살려 현대대학의 중·서고전을

다. 학생들은 교직원들 통해 전사회의 인류유산을 지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교수의 안락은 영원히 안락하는 해인가? 안락을 통해 선진국 대학처럼 연구하고 지식을 내는 중보도 필요하다. 또한 전진적인 지기기술에서 전문화된 직업의식을 가져야 하며 학내 연수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관의 확립이 필요하다. 노년자 지기이론은 적이나 하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전문화시대의 혁명이다. 특히 대학 도서관의 모든 직원은 가능한 한 교육적으로 전문화 시켜서 수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도서관이 동아리 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다.

한국대학에 대학교와 과감한 의식혁명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학문을 추구하여 최첨단기술의 교육으로 두뇌강화시대의 전통을 되살려 현대대학의 중·서고전을

다. 학생들은 교직원들 통해 전사회의 인류유산을 지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교수의 안락은 영원히 안락하는 해인가? 안락을 통해 선진국 대학처럼 연구하고 지식을 내는 중보도 필요하다. 또한 전진적인 지기기술에서 전문화된 직업의식을 가져야 하며 학내 연수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관의 확립이 필요하다. 노년자 지기이론은 적이나 하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전문화시대의 혁명이다. 특히 대학 도서관의 모든 직원은 가능한 한 교육적으로 전문화 시켜서 수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도서관이 동아리 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다.

한국대학에 대학교와 과감한 의식혁명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학문을 추구하여 최첨단기술의 교육으로 두뇌강화시대의 전통을 되살려 현대대학의 중·서고전을

다. 학생들은 교직원들 통해 전사회의 인류유산을 지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13회 전국대학생

외 국 어 학 력 경 시 대 회

① 참가대상: 전국 4년제대학(사) 재학생(대외교강 참가)

② 접수내용: 경시과목: 영어, 불어, 독어, 일어, 중국어(배1) 경시분야: 수

영: 국어 및 해당 외국어로 번역

회 화(I, II): 참위원, 국사원

③ 대회일시: 1993. 6. 22(화) 09:00~17:00

④ 대회장소: 한국 외국어대학교

⑤ 원서접수: 1993. 6. 7(월)~6. 18(수) 소속대학(사) 학생처(과)

⑥ 시 상: 각 과목당

최우수상: 1명 교육부장관 상장 및 부상 100만원

우수상: 2명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상장 및 부상 50만원

장려상: 3명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상장 및 부상 20만원

⑦ 성적 우수 입상자 특징

① 과목별 우수수준: 각 1명과 우수상 입상자 2명을 성적 순위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국어 및 영어의 우수

자 간-동-하에 방학중 12월 내외

우수수준: 이후 모든 국문수준

② 과목별 우수수준: 각 1명

③ 대외교강(KAL)이 제공하는 항공기 왕복 항공권(영어: 뉴욕, 불어: 파리, 독어: 프랑크푸르트, 일어: 동경, 중국어: 홍콩)

④ 접수 및 문의처: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 교학과

130-791,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70

전화: (02) 965-7047, 961-4083

주 최: 한국외국어대학교

후 원: 교 육 부

협 찬: 대한항공(KAL)

입 찰 공 고

1. 입찰사항: 서점, 복사실, 화장품 매장, 컴퓨터 매장, 이발관, 안경점, 미용실, 잡화점, 화장지 자판기 등(8개 매장)
2. 입찰일시 및 장소: 1993년 6월30일(수) 11:00시 본 캠퍼스 교양관 305호실
3. 입찰방법: 공개 경쟁 입찰
4. 입찰방법: 구비서류, 운영계획서 및 복지기금 납부액을 검토하여 결정 함.
5. 입찰보증금: 한국 입찰은행(동북 마강입찰 본 캠퍼스 경리과 납부)
6. 입찰참가자격: 소정의 자격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유경험자로서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한자
7. 입찰참가 신청서 배부일시 및 장소: 1993년 6월14일(월)부터 본 캠퍼스 학생처
8. 입찰참가 등록 마감 일시: 1993년 6월18일(금) 12:00시
9. 입찰자 유의사항
 - ① 경락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교에 귀속함
 - ②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및 입찰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10. 계약체결일시: 1993년 7월5일(월)
11. 매입방법: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산 89번지 한국의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후생복지장 외
12. 하산 및 교직원 수: 5,500명
13. 기타 상세한 입찰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처 장학복지과(0335-30-4033, 4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93. 6. 1

한국외국어 대학교 용인캠퍼스 복지위원장 양 승 윤

(총무처장)

공 고

제 목: 93년도 예비군 기본교육 실시

본 대학교 직장 예비군 기본교육을 아래와같이 실시하오니 예비군대원은 일정에 따라 훈련에참석할 것.

1. 대학별 교육일정

학과	교육장소	교육기간	교육시간	비 고
8.21(화)	과목별	비교과대학	09:00~12:00	수업개시시간
8.22(수)	과목별	비교과대학	09:00~12:00	수업개시시간
8.23(목)	과목별	비교과대학	09:00~12:00	수업개시시간
8.24(금)	과목별	비교과대학	09:00~12:00	수업개시시간
8.25(토)	과목별	비교과대학	09:00~12:00	수업개시시간
8.26(일)	과목별	비교과대학	09:00~12:00	수업개시시간
8.27(월)	과목별	비교과대학	09:00~12:00	수업개시시간
8.28(화)	과목별	비교과대학	09:00~12:00	수업개시시간
8.29(수)	과목별	비교과대학	09:00~12:00	수업개시시간
8.30(목)	과목별	비교과대학	09:00~12:00	수업개시시간
8.31(금)	과목별	비교과대학	09:00~12:00	수업개시시간

2. 교육훈련 비대상자

가)93년도 전향한 예비군훈련 전향 한 소정면제대상(미복합군)

나)지역에서 18살이 교육 교육 이수자

대체군 7명 이상 중 소정면제 4명 이상자

3. 유의사항

가)소정면제 대상자를 제외하고 복합군 병행한다.

나)대체군은 예비군복합군 제외함

다)대체군은 예비군복합군 제외함

라)대체군은 예비군복합군 제외함

마)대체군은 예비군복합군 제외함

바)대체군은 예비군복합군 제외함

사)대체군은 예비군복합군 제외함

아)대체군은 예비군복합군 제외함

자)대체군은 예비군복합군 제외함

차)대체군은 예비군복합군 제외함

한국외국어대학교 직장예비군 연 대 장

제1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출범식

제작 : 사진부

전대협의 역사를 안고 학문·생활·투쟁의 공동체로...



한중련 제1기 의장 응립

한중련 출범식 마지막 날 밤인 지난 28일(금) 7만여 학우들에 의해 김재용(한양대 총학생회장) 군이 제1기 의장으로 응립했다.



백만학도의 삶의 터전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고려대에서 7만여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기 한중련 출범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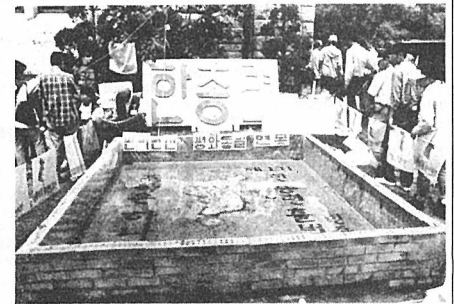
건설, 한중련!!

한중련 출범식 전, 서총련은 사진전의 대회를 갖고 출범식 사수 결의를 다졌다.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출범식을 마친 후 거리로 나간 학생들은 광주문제의 반미에 대해 시민들에게 선전하고 토론을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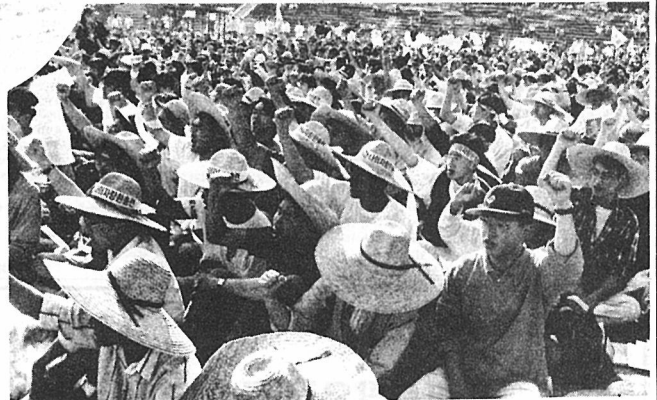
학원 자주주의
기치를!!

평화통일 연못

출범식 기간중 고대내에 만들어진 통일기를 기원하는 모형 연못이 학우들의 눈길을 끌었다.

새내기과 복학생의
대동한마당

새내기과 복학생, 예비역까지 손에 손을 잡고 한중련의 주인으로 우뚝서고 있다.

한중련 출범식의
열기를 농활까지...

한중련 출범식의 뜨거운 열기가 벌써 농촌으로 달려가고 있다.



또 만났구나

출범식 기간중 연희동동 곳곳의 시위과장에서 전경과 충돌, 많은 학생들이 부상을 입었다.

전도 체포없이
신한국 창조 불가

새로운 부쟁 장소로 무지번 연희동 앞 교차로에서 출범식 마지막 날까지 전·노조포를 요구하며 연와시위를 벌였다.